

SM·백현, 온라인 콘서트... 오프라인 노하우·문화기술 집약

‘비욘드 라이브-백현:라이트’, 120개국서 11만 시청자

자선공연 ‘글로벌 골 라이브:더 파서블 드림’ 사실상 전초전

그룹 ‘엑소’ 백현의 ‘고스트’ 무대에 ‘진짜 고스트’가 등장했다.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 빛으로 형상화된 8m 크기의 자이언트 댄서가 백현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쳤다.

모션 캡처는 사람의 연기를 컴퓨터로 옮겨 디지털 캐릭터의 형상으로 전환하는 시각효과 기술이다. ‘반지의 제왕’ ‘혹성탈출’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다.

지난 3일 오후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생중계된 ‘비욘드 라이브 - 백현 : 라이트(Beyond LIVE - BAEKHYUN : LIGHT)’는 엑소 세계관 속 백현의 초능력인 ‘빛’ 콘셉트를 잘 보여줬다.

백현의 첫 솔로 콘서트인 이번 무대에서 따뜻한 분위기의 서점을 배경으로 한 ‘나의 시간은’,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러브 어게인(Love Again)’, 내은산인으로 꾸며진 캔디슈 배경의 ‘캔디(Candy)’ 등 실감나는 증강현실(AR) 및 확장현실(XR) 효과가 어우러졌다.

덕분에 세계 팬들이 크게 호응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등 세계 120개국에서 약 11만 시청자들이 함께 공연을 즐겼다. ‘#BAEKHYUNBeyondLIVE’, ‘#BAEKHYUN1stConcert’ 등의 해시태그도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점령했다.

문화기술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팬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백현은 다중 화상 연결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소통으로 팬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온라인이니까 여러분과 만나 같은 시간대에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다.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고 싶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계속 성장할 테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했다.

‘K팝 한류’를 개척한 SM타운은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신축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온라인으로 열린 글로벌 음악 축제 ‘SM타운 라이브(SMTOWN LIVE)’가 증명했다.

‘컬처 휴머니티(Culture Humanity)’라는 부제를 달고 당일 오후 1시(한국시간 기준)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비롯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세계에 무료 중계된 이 공연은 무려 186개국에서 약 3583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유무로 포함 한국 온라인 콘서트 사상 최대 시청 숫자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오프닝 영상에 등장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는 “음악은 장벽이 없다. 언어 없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서로에게 또 각자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기도 한다. SM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악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 프로듀싱 시스템의 기반인 CT(Culture Technology·문화기술)의 핵심이 ‘휴머니티(Humanity)’라고 강조했다. “오늘 이 무료 콘서트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SM 팬들의 휴머니티를 축복하고 자축하기 위함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겸손하고, 사랑하자(Be kind, be humble, be the love)”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콘서트는 이런 메시지가 각 가수들의 세계관이 녹아든 무대로 구현됐다.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공룡인 디즈니처럼 ‘K팝 음악산업 제국’이 목표인 SM은 이날 소속 가수들을 마치 어벤저스처럼 소개했다.

가상의 성(城) 앞에 그간 SM을 통해 배출된 H.O.T 출신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사이니 태민, 엑소, 레드벨벳, NCT,

슈퍼엠, 에스파 등을 상징하는 마크가 나란히 배치됐다.

SM은 앞서 ‘SM의 어벤저스’ 그룹인 슈퍼엠의 머천다이즈(굿즈)를 디즈니의 마블과 협업해서 공개하기도 했다.

NCT 드림, 웨이션브이(WayV), NCT 127 등 NCT 유닛이 문을 연 이번 콘서트는 레드벨벳, 엑소 카이, 사이니 태민, 슈퍼주니어-D&E, 슈퍼엠(SuperM), 엑소 백현, 강타, 에스파, NCT U, 태연,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등 SM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공연 말미에는 전 출연진이 함께 희망에 대한 응원과 새해 인사를 담은 ‘빛(Hope)’ 영상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애프터 스테이지로 레이든, 긴조, 임레이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DJ들이 SM 아티스트들의 히트곡을 리믹스한 세트리스트로 흥겨운 EDM 공연도 선사했다.

SM은 일찌감치 레이브 콘서트를 선보여왔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 뉴욕, LA, 파리,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방콕, 싱가포르, 두바이, 칠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 단일 브랜드 공연 최초 프랑스 파리 공연’, ‘아시아 가수 최초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 ‘해외 가수 최초 중국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공연’, ‘두바이 최초 대규모 K팝 공연 개최’, 칠레 산티아고 국립경기장 K팝 첫 공연 등의 기록을 세웠다.

또 SM은 지난 4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협업한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유료 콘서트 플랫폼을 선보였다.

슈퍼엠이 처음을 장식했는데 컬러 테크놀로지(CT)를 온라인 콘서트 분야에 적용, 증강현실(AR) 기술 및 다중 화상 연결을 통한 인터랙티브 소통 등을 선보였다.

지난 8월에는 역시 K팝을 대표하는 기획사 중 한 곳인 JYP엔터테인먼트까지 가세, ‘비욘드 라이브’를 위한 전문 회사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Beyond LIVE Corporation·BLC)’도 설립됐다.



이번 SM타운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는 SM이 그간 쌓아온 오프라인, 온라인 콘서트의 노하우가 집약됐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해 전 무대 사전 녹화로 진행, 안전하게 촬영을 마쳤다.

유니버스 형식으로 공연 섹션을 구성해 지루함을 덜어냈고, 카메라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증강현실(AR) 기술 및 그래픽 효과가 더해졌다.

이번 공연은 무료라는 점도 돋보였다. SM은 “새해를 맞아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기획된 특별 공연”이라고 소개했다.

태연도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던 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비대면 공연이 트렌드가 돼서 ‘SM타운 라이브(SMTOWN LIVE)’ 공연 티켓팅 하느라 고생 안하고 전 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노윤호 역시 “늘 있을 때는 잘 몰랐던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하고 애뜻하게 느껴졌다.

2021년에는 작년에 배운 평범함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SM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진두지휘해 열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자선 콘서트 ‘글로벌 골 라이브: 더 파서블 드림’의 아쉬움도 덜어줬다.

21세기판 ‘라이브 에이드’로 통하는 ‘글로벌 골 라이브: 더 파서블 드림’은 세계 빈곤 퇴치가 목적이다.

우선 내년 9월 25일로 미뤄졌다. 역시 이수만 프로듀서가 총괄하는 이번 SM타운 라이브가 자선적 성격을 갖고 있어 ‘글로벌 골 라이브: 더 파서블 드림’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이성수·탁영준 SM 공동대표는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삶 속에 가깝게 자리하며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매개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전 세계 K팝 팬들을 응원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밝은 희망과 에너지를 드리고자 이번 무료 공연을 준비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트레저 ‘더 퍼스트 스텝 : 트레저 이펙트’, 악뮤 이찬혁 지원 사격

오는 11일 오후 6시 발매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 ‘트레저’의 정규 1집 ‘더 퍼스트 스텝 : 트레저 이펙트(THE FIRST STEP : TREASURE EFFECT)’에 소속 사 선배인 남매 듀오 ‘악뮤(AKMU)’의 이찬혁이 힘을 실는다.

4일 YG에 따르면, 트레저가 11일 오후 6시 발매하는 정규 1집 ‘더 퍼스트 스텝 : 트레저 이펙트’의 3번 트랙 ‘슬로우모션(SLOWMOTION)’을 이찬혁이 공동 작사·작곡했다.

YG는 “천재 뮤지션”으로 불리는 이찬혁과 ‘글로벌 슈퍼 루키’ 트레저의 첫 만남이 어떠한 조화를 이뤄 신선한 시너지로 발현됐는지 타 이튿날 못지않게 주목된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마이 트레저’를 비롯 트레저를 탄생시킨 ‘보석함’의 시그널송 ‘미처가네(GOING CRAZY)’, 피지컬 음반(CD)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랑해(I LOVE YOU)’ 피아노 버전과 ‘음(MMM)’ 록 버전 등 ‘더 퍼스트 스텝(THE FIRST STEP)’ 앨범 시리즈 전곡이 총망라됐다.

특히 YG 프로듀서진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



속 트레저 멤버들은 정규 1집 트랙리스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대거 올렸다. 래퍼 라인인 최현석, 요시, 하루토가 ‘마이 트레저’의 작사가로 등재됐다.

최현석과 하루토는 10번 트랙 ‘미처가네(GOING CRAZY)’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곡의 작사 및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 요시는 총

10곡의 크레디트에 포함됐다.

트레저는 앞서 발표한 3장의 싱글 타이틀곡 ‘보이(BOY)’, ‘사랑해(I LOVE YOU)’, ‘음(MMM)’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강렬한 사운드와 퍼포먼스 위주의 곡들로 서사를 만들어냈다. 정규 1집 타이틀곡 ‘마이 트레저’를 통해 처음 밝은 분위기의 팝 장르를 선보인다.

박봄, 70kg→59kg·‘ADD증후군’도 완화

SNS에 ‘کم백예고’ 알려

결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정신적 황폐현상인 ‘ADD증후군’도 완화됐다.

박봄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드디어 컴백 준비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녹음실에서 연습 중!”이라는 ‘컴백 예고’ 글과 함께 녹음실에서 연습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공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서 박봄은 예전과 달리 날씬해진 모습을 자랑했다. 기존 체중 70kg에서 11kg을 감량했다고 한다.

박봄은 “ADD 치료 받으려고 먹는 약 때문에 다이어트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빼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살 빼고 나서 약도 많이 줄이고 건강해 지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과거 박봄은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주위가 산만해지는 증상을 보이거나 충동성, 과잉행동 등을 일으키는 ADHD와 비슷한 증상의 ADD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DD 치료를 위해 처방 받은 약을 복용 중인 박봄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제대로 된 일상 생



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식욕 통제 또한 되지 않아 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70kg까지 증가했다.

박봄의 다이어트 관리를 함께 진행한 다이어트 전문 기업의 담당 컨설턴트는 “슈퍼주니어 신동 씨나 이영현 씨, 허각 씨, 샘 해밍턴 씨 등 많은 연예인 분들의 관리를 진행해 봤지만 박봄씨가 가장 관리가 어려운 케이스였다”면서 “관리 중간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 관리를 중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식욕 통제가 되지 않아 식단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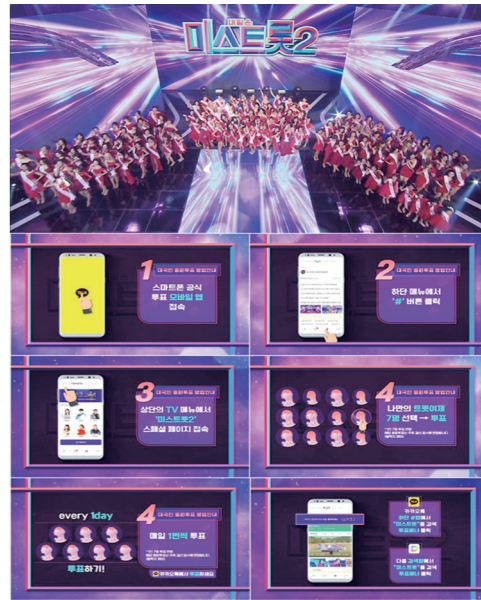
‘미스트롯2’ 대국민 응원 투표 80만 건 돌파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의 대국민 응원 투표가 폐지 오픈 이틀 만에 8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31일 방송된 ‘미스트롯2’ 3회 방송 후 ‘나만의 트롯예제’를 뽑는 대국민 응원 1차 투표 캠페인이 열렸다.

대국민 응원 1차 투표는 3일 현재 80만 회가 넘는 누적 투표수를 기록했고 댓글 수도 1만 건을 돌파했다. 대국민 응원 투표는 추후 결선 점수에 반영되며, 매일 1인당 1회씩 투표가 가능하다. 대국민 응원 투표 1차 결과는 7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4회에서 발표된다.

제작진은 “‘미스트롯2’가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얻고 있음에 따라, 공식 앱을 빙자한 유사 앱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식 앱을 통한 투표를 당부했다.



주지훈, H&엔터와 전속 계약...인교진·정려원과 한솔밥

차기작은 tvN 드라마 ‘지리산’·영화 ‘사일런스’

배우 주지훈이 H&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주지훈과 H&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수의 작품을 통해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며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한 팬덤을 가진 주지훈이 더욱 견고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몰입양면으로 최고의 지원을 하겠다”고 4일 전했다.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로 쌓여온 배우에

등극한 주지훈은 ‘공작’ ‘암수살인’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주지훈은 2020년 SBS TV 드라마 ‘하이아나’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2’로 전 세계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이에 주지훈은 ‘킹덤2’로 아시아콘텐츠 어워즈에서 남자 배우상을, ‘아시아모델어워즈’에서는 연기자부문 최고의 상인 아시아스타상을, ‘하이아나’로는 2020 SBS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 장르, 액션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주지훈의 차기작은 tvN 드라마 ‘지리산’과 영화 ‘사일런스’로 정해졌다.

H&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유명 매니지먼트사 부사장 출신의 흥민기 대표가 설립한 신생 매니지먼트다.

홍 대표는 2011년부터 주지훈의 실무를 담당해왔다.

인교진, 정려원, 손담비, 소이현, 한보름, 정인선, 정수정, 광동연, 강민아가 소속되어 있다.

뉴스스